

# 청소년 배움 자율학습권 지원

## 익산시, 민·관 협력 맞춤형 청소년 복지비전 400명 지원

익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자율 학습권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청소년복지비전카드를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아 학원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권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충전식 바우처카드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역 내 211개소 학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원비 결제는 민·관 협력에 따라 총 이용금액(1과목 기준)의 50%는 시 예산 40%는 학원의 재능기부, 10%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이다.

서비스 이용 한도는 매월 초등학교 8만원과 중·고등학교 15만원 금액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지원대상은 총 401명(초등학생 145명, 중·고등학생 256명)을 지원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2023년 기준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생이다. 지원 희망 대상자는 본인, 가족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1월 초에 이용자 선정이 끝나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으로 청소년비전카드를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211개소 가맹점(학원에서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익산시학원연합회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문화·체험활동 등 청소년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교육 능력향상을 위해 대상자 및 예산 확대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학업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22일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 관련 채용연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미스매칭 해소해 취업 지원”

### 군산대, 채용연계 산학협력 위한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는 22일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 관련 채용연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지만, 양질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는 지역대학으로는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가 참여하였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 (주)전보리스, 이피캠펙(주), 굿바이(주)가, 유관기관으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연계개발원,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가 참여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골자는 △이차전지 채용연계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수요조사 기반 채용연계 교육과정 개발 △이차전지 실습장비 공동대 구축 △산학협력기관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사업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양성 △취업지원활동 등이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지역 내 대학인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그의 인근 전문대학들과도 2+2, 3+1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추진 중이며, 융복합 지역특성화 교육 및 지역산업연계 특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 중심의 채용연계공유전공제도를 개발하여, 2023학년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차전지 채용연계 산학협력을 위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대학교는 채용연계공유전공 및 이차전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군산대학교는 올해 8월 채용연계공유전공 TTT를 구성하여 전보리스, 성일하이텍, 웹바이오텍을 대상으로 산업체 수요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또한 비전공자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 계열 연계성을 분석해, 이차전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시정소식지 새명칭 ‘다도익산’ ... 시민공모 선정

### 시민 134건 후보작 중 최종 당선

익산시 시정 소식지가 새해 1월호부터 시민이 직접 제안한 새 이름 '다도익산'으로 찾아간다.

특히 올해는 익산시 민선 8기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민선 6·7기 동안 사용하던 기존 소식지명을 내려놓고 새 소식지명과 함께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2023년의 첫 호를 발행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코너들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존 소식지명인 '꿈과 희망의 익산이야기'를 대체할 새 명칭을 공모한 결과 '다도익산'을 최종 선정했다.

1위로 당선된 '다도익산'은 익산의 대표 브랜드 자리잡은 '다이로움'의 상징성과 더불어 시민 모두 다 다리로 운 시정 소식을 더 많이 전달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해당 명칭 공모는 지난달 시민들을



익산시 시정 소식지가 새해 1월호부터 시민이 직접 제안한 새 이름 '다도익산'으로 찾아간다.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참신한 소식지명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34건의 후보작 가운데 1·2차 심사를 거쳐 당선작 1개와 가작 3개를 선정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정보공개로 투명행정 전국 '최우수'

익산시가 시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 실현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우수 '투명행정도시'로 우뚝 섰다.

시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시 단위' 부문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4년 연속 최우수 타이틀을 이어 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종합 평가했다.

시는 공표가능자료를 발굴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하는 등 시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추진으로 사전

정보 분야에서 만점을 달성했다.

또한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만족도 등의 10개 지표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평가 점수가 골고루 증가한 점이 평가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는 신뢰받는 적극 행정 추진의 기반으로 전 직원들이 협력에 이룬 결과”라며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내년 하수도사용료 25% 인상

군산시는 22일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까지 5개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

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교도소세특장, 성탄 트리로 핫플레이스 등극

익산시 교도소세특장익산시 상당면 소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밝혀지며 삭막한 교도소와 대조적인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2023년 익산방문의 핵심공적 운영을 기원하며 성탄 트리를 제작해 21일 상당면에 위치한 교도소세특장에 설치했다.

이날 설치된 성탄트리는 높이 2m에 달하는 나무 구조물에 갖가지 조명시설들과 더불어 2023년 익산방문의 해를 상징하는 현관을 제작하여 함께 장식했다.

내년 1월 초까지 운영되는 성탄트리는 익산교도소세특장의 새로운 관광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삼학동 일원 불량수도관 교체 추진

군산시는 22일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를 공급과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해 삼학동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주철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 관로는 지난 7월 수도관 파손으로 인해 출수불량 및 단수로 주민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로 파손·도난·외부 요인에 의한 파손 위험이 크며 노후화가 진행 될수록 경생 및 교체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교체 대상 관로로 선정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16억을 편성해 500mm수도관 1.1km를 교체하며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이 가능하고 누수량 저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혁 수도사업소장은 “국고 지원 건의와 자체 자금을 투입해 지속적인 불량수도관 교체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를 공급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